

내가 자라면서 점점 짧아지는

(『긴긴밤』을 읽고)

최정환

나는 서울 노원구에 산다. 우리 아버지는 대구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주말마다 집에 오신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몇 주씩이나 못 오실 때도 많았다.

지금은 아빠 없이 자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아버지가 대구로 발령받아 내려가셨을 때는 밤이 너무 무서웠다.

아빠가 같이 살 때는 퇴근하시면 아버지가 책도 읽어 주시고 받아쓰기도 봐 주시고 보드게임도 같이 해 주셨다. 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캐치볼도 해 주셨다. 밤이 되면 아버지는 현관문의 보조 키를 잠그고 집 안의 문단속을 하셨다.

나의 밤은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하고 따뜻한 밤이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 무섭고 긴긴밤이 되었다.

그런데 나만 긴긴밤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긴긴밤』의 ‘나’와 노든 역시 긴긴밤을 보냈다.

노든은 코뿔소였다. 그는 코끼리 고아원에 있었다. 덕분에 노든은 코끼리들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그 고아원에 계속 남을지 나가게

될지 결정하는 시험에서 노든은 고아원을 떠나게 되었다.

노든은 초원을 나오고 다른 코뿔소와 결혼해서 딸까지 낳았지만 인간들 때문에 딸과 아내를 잃게 된다. 그리고 노든은 동물원으로 갔다. 동물원에서 같은 코뿔소 양가부를 만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노든이 다리 치료를 받은 날, 양가부는 죽고 노든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그 느낌을 알 것 같다. 형제가 없는 나는 아با와 엄마가 없으면 혼자인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나는 그 느낌이 너무나 싫다. 아마 노든도 그랬을 것이다.

노든은 우리를 탈출하고 가는 길에 알을 갖고 탈출한 펭귄 치쿠를 만났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좋은 자리를 찾아 간간히 쉬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걸었다. 그 때문인지 치쿠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알이 부화하기 전에 죽었다.

하지만 노든은 알을 끝까지 보호하고 ‘나’가 태어났다. 나는 노든이 외로운 가운데서도 알을 부화시킨 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노든은 마치 아با 같았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노든에게 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바다로 데려다주기 위해 노든과 함께 걸었다.

노든은 자신의 부인과 딸을 죽인 사람들을 만나 대항하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도망을 친다. 그리고 사막을 걷다 쓰러졌다. 나는 노든이 치쿠처럼 죽었을까 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사람들을 만나 치료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 노든을 뒤로한 채 ‘나’는 바다로 향했고 드디어 바다를 만났다. 나는 ‘나’가 참 기특했다. 혼자서는 바다에 도

착하기 힘들 것 같아 걱정했는데 마침내 해낸 것이다. ‘바다에 왔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다 부듯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이제 아빠가 없는 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긴긴밤』에서 점점 성장해 간 ‘나’처럼 나도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엄마와 같이 장을 보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인 화요일마다 재활용 쓰레기들을 정리했다. 그런 나를 엄마는 다 컸다며 칭찬해 주시고 고맙다고 하셨다. 아빠도 아빠가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해 주고 있다며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애쓰는 아빠와 엄마가 더 고맙다.

밤이 되면 나는 아빠가 하던 문단속을 하기 시작했다. 보조 키를 잠그고 창문도 확인한다. 나는 아빠가 될 순 없지만 점점 아빠처럼 든든한 아들이 되고 있다.

가끔 천둥번개가 치거나 엄마가 외갓집에 가서 늦는 날이면 ‘긴긴밤’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밤을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긴긴밤』의 ‘나’는 부모 같았던 치쿠와 노든을 떠나 펭귄 무리를 만난다. 나는 ‘나’가 긴긴밤을 견뎌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치쿠와 노든 같은 든든한 부모님이 계신다. 노든과 ‘나’가 서로를 기대고 잠든 밤처럼 나도 엄마랑 기대고 긴긴밤을 보낼 수 있다. 나도 엄마에게 노든 같은 사람이 되어 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긴긴밤은 점점 짧아질 것이다.